



Taeyang Metal Industrial CO., LTD

태 양 가 족

2002

통권 제7호

1

• 발행일: 2002년 1월 1일 • 발행인: 한우삼 •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95번지 • 홈페이지: www.taeyangmetal.com • 편집위원: 류영수, 최성규, 이일두 • 편집: 이진경 • 전화: (031) 4905-513



2002년도 사장방침

● 의식개혁

1. 주인의식 함양
2. 상호 신뢰감 조성

● 원가절감

1. 낭비요소 제거
2. 합리적인 비용 지출

● 품질향상

1. 불량제로화
2. 작업개선



태양가족

Taeyang Metal Industrial CO.,LTD

2002

통권 제7호

1

社訓

信 信 實
義 用 力



표지설명

부산일광면 학리 일출 (권오철작)
새벽과 함께 여는 뱃사람들.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함께 공존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명 상 록



미소란 의사소통을 하는 단순하고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말 이상의 표현력을 지녔다. 또한 사람을 아주 개성 있게 만들어 준다.

김 완 수

시인 · 소설가

C O N T E N T S

사장방침	2
경영자칼럼	4
새해인사	6
태양뉴스	10
영업소 탐방	11
테마가 있는 이야기 여행	12
수필	14
태양동정 / 축하게시판	15
우리아이들세상	16

대표이사 사장 신년사



한 우 삼

대표이사 사장

친애 하는 태양가족 임직원 여러분!

기대와 벅찬 설렘으로 가득한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루고 회사도 더욱 더 성장하여 보람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제가 경영을 다시 맡으면서 자신감과 희망에 부풀어 새롭게 출발했던 한해였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테러전쟁, 거래업체의 부분파업, 치열한 동종업체들의 가격·품질경쟁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힘든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난관을 잘 극복하여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상, 산업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태양가족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회사의 이름을 빛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경제환경도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완성차 업계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입찰제도로 인해 과거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동종업체간의 가격, 품질경쟁이 예상되며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가속화 등으로 국내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환경조차도 복잡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산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던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이 품질과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지역에 상관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대만 등 우리의 경쟁상대들은 지금을 한국의 부품시장에 뛰어든 중대한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하드웨어(Hardware) 분야에서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자국의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인력을 앞세워 점점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위해 마쓰다 등 우수한 거래처를 개발하고 직수출을 하기까지는 약 2년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소요되지만 여기에는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만일 도중에 품질·납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동안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거래처에 우리만 납품하는 것도 아니어서 세계의 경쟁상대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기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회사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미주시장에서 값싼 소형차 메이커(Maker) 이미지를 씻고 중형차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우리가 본받고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태양금속은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국내의 동종업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상대가 중국이던, 국내 동종업체이던 간에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차별화 된 기술력으로서 세계적인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키운다면 태양금속은 여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저력 있는 회사이며 숭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 반세기를 바라보는 동종업체의 선도

업체이자 냉간 단조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본인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용기, 열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 속의 초우량 기업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2002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여러분께서 늘 염두에 두고 솔범수범 하여 앞장서 나가야 할 다음의 몇 가지를 2002년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의식혁신입니다. 의식혁신의 주요 근간은 전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자기혁신을 이루어 자긍심을 함양하고 동종업계에서 국내 최고기업의 직원 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제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양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회사와 태양가족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이 되는 것이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설비와 장비가 좋아도 그 설비를 실제로 다루는 인적자원의 내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그 결과물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2002년에는 우리 모두 조그만 이해관계보다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양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원가절감입니다.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원가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원가구조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거래처로부터 외면 받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오늘의 시장상황입니다. 생산과 영업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이루어 내는 조그마한 개선과 원가절감이 목표달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원가절감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째, 품질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잘 해놓고 도중에 불량을 발생시켜 해외 거래처에 불량품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심게 되면 그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되어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처음의 실수를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지만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간단조분야에서 전통과 경험을 쌓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업체라는 우리가 이러한 점은 부끄럽게 여기고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태양가족 임직원 여러분!

2002년은 분명히 어려움과 기회가 함께 하여 작년 보다 더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경영방침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솔선수범 하여 하나둘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회사와 개인의 발전에 좋은 약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21세기의 초우량 기업', '고객에게는 언제나 신뢰감을 주는 회사', '동종업체에게는 배우고 본받을 만한 회사'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모와 전통보다는 품질과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경영방침의 실천을 통해 지난해에 다하지 못한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임오년 새해 아침을 맞아 바람을 가르며 거친 황야를 활기차게 질주하는 백마처럼 고난과 시련에 맞서서 굳건하게 전진하는 태양가족이 되길 바라며 태양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며 이만 새해 인사에 갈음할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T.Y**

"변화에 주인이 되는 태양가족"

한미영 | 부사장

시간 이 화살처럼 흘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매년 올해에는 꼭 보람있고 알찬 한해를 보내겠다고 많은 계획을 세워놓지만 한해의 끝에 가면 손으로 꼽을 것이 별로 없는 한해를 보내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 변화하고 있다라도 세상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들이 바꾸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주역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



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회사가 더욱 잘 되길 바라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맘에 두고 있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명(mission)이 있어야 하고, 그 사명이 원칙과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큰 화재에도 인명피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하시고 마음을 합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임오년 새해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 회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Y**

상호협조와 융화(融和)을 통해 상생(相生)의 길을 구(求)합니다."

유재성 | 전무이사

중국의 어느 성현의 말씀에 '좌수화원(左手畫圓) 우수화방(右手畫方)하면 양불성(兩不成)'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은 왼손이 원을 그리려 하고, 오른손은 사각을 그리려하면 두 손다 실패를 한대라는 뜻입니다. 상호협조(Cooperation)와 융화(Harmony)를 통해 상생(相生)의 길을 구(求)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둘이 협조하면 쉽게 이루어질 것을 서로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다 결국 둘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고 겪어 왔습니다. 정치판에는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不信)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불화, 부모 자식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기업에서는 노사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할 줄 아는 관용(寬容)의 미덕(美德)은 이미 우리 곁을 널리 떠났다는 느낌입니다.

대망의 제2의 창업을 선포했던 지난 2001년을 조용히 돌이켜 보면서 우리회사 또한 이 상호협조와 융화의 정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팀장과 팀원, 반원과 반장의 융화 더 나아가 영업과 생산의 융화, 경영진과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원활하게 지속되었는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는 'global outsourcing'이라는 큰 물결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큰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품질개혁,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성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큰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협조와 융화의 정신이 반드시 동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개혁, 기술혁신은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조와 융화를 멀리하는 우(愚)를 또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이제 한국의 태양금속이 아니라 세계 속의 태양금속입니다.

우리제품이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미래의 시장이라는 중국에도 우리의 제품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좁아만 가는 세계 시장 속에서 기술의 태양금속으로 우뚝서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협조와 융화의 정신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좌수화원(左手畫圓) 우수화방(右手畫方)하면 양불성(兩不成)' 오늘도 조용히 되새겨보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TY**

초일심(初日心)과 최후심(最後心)을 잊지 않는 한해가 되길...

백기환 | 상무

마지막이란 말이나 처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진한 여운과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인지 신사(辛巳)년을 뒤로하고 임오(壬午)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웬지 진솔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요가 지도자인 충정홍은 사람들에게 늘 초일심(初日心)과 최후심(最後心)으로 살아가라고 권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초일심을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감격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일을 해도 처음에는 열심히 잘 하리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권태와 요령이 붙어 처음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극진히 사랑해서 화합된 것이지 싫어하는 사이에 부부가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밤과 신혼 초의 추억은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 마치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부부가 된 것처럼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성과 권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육체에 감동이 없고, 마음과 육체에 감동이 없으면 생명에 감동이 없는 법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최후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

마지막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오늘 하루만 지나면 더 이상 이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초일심과 최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든 화합된 삶,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항상 초일심, 최후심의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우리회사와 태양가족 모든 분들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TV**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반복하지 않길..."

차용수 | 상무

태양 가족 여러분!

일년동안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엄청난 눈으로 천막이 무너져 새로 지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천막을 다시 지으면서 많은 눈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천막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지붕모양을 등글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눈이 쌓이지 않게 했고, 천장과 기둥의 파이프를 굵은 것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장 문과 천막입구를 연결하여 비나 눈이 오더라도 제품 이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도 적용되었습니다. 완성해놓고 보니 미관도 전보다 좋아진 느낌입니다.

천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 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왜 처음부터 천막을 설계하고 지을 때



그러한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일이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일 역시 천막과 같은 문제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

해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회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것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잘 살펴보아야 남들과 다른 참신한 해결방안이 신속하게 나올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신년계획 역시 세밀하고 튼튼하게 설계되어 한해 동안 바라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TV**

"세계 속의 태양금속으로 우뚝 서길"

이한세 | 이사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을 보내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2002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이들이 한해를 마감 할 때면 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시켜 표현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는 우리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우리회사는 1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회사의 안정을 찾은 한해였습니다. Change! 110 운동을 노동조합 주관 하에 실시하고 노사가 하나되어 우리의 역량을 응집하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우리 경제의 침체는 우리 경제의 빛을 바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르노자동차에 매각된 것에 이어 대우자



동차가 GM에 매각되고 중국의 WTO에 가입과 2001년 6월 중국정부의 자동차 산업 제10차 5개년 계획의 발표로 인하여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도는 크게 개편되고 있으며, 가장 좋은 부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조달해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 차원의 부품조달(global sourcing)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구도개편 가운데서 우리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욱 응집하여 세계 속의 태양금속으로 거듭나야합니다.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정을 개선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세계 속의 태양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태양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TY**

"작심 3일의 후회를 만들지 맙시다."

임완수 | 이사대우

신사 (辛巳)년도 이제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임오(壬午)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포부와 꿈을 갖게 되고 이것을 이루려고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곧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한해가 저물면 "내가 무엇을 했나." 올해도 또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나 간 것은 무엇이든 아름다운 추억으로 두고 희망찬 새해 임오(壬午)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



씩 실천을 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가시면 뜻을 이루는 임오(壬午)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가족이 세운 새해 계획은 작심3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꼭 뜻이 이루어져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말미해를 맞이하여 말처럼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는 가운데 계속 좋은 일만 생겨서 행복한 가정과 (처녀, 총각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직장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TY**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한해를 위하여"

이병욱 | 노조위원장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다보는 것만큼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알고 있으면서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른 뒤 뒤늦게 후회를 하고 연인은 사랑하는 애인과 이별하고 나서야 아쉬워합니다. 금년 초 조합원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저 역시 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느낍니다.

2001년 저희 회사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기도 했으나, 후발업체에 개발품을 빼앗기거나 Change! 110운동을 추진하는 도중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품질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아쉽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는 외주가공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외주가공 해야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전 조합원이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신년에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해로 삼

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어느 동종업체도 따라 잡을 수 없는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자존심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한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아쉬움이나 후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일은 곧 나 자신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일과 같음을 잊지 맙시다.

모쪼록 신년에는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TY**

겨울길을 간다

이 해 인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별 없는 겨울 숲을
아는 이 하나 없다

가솔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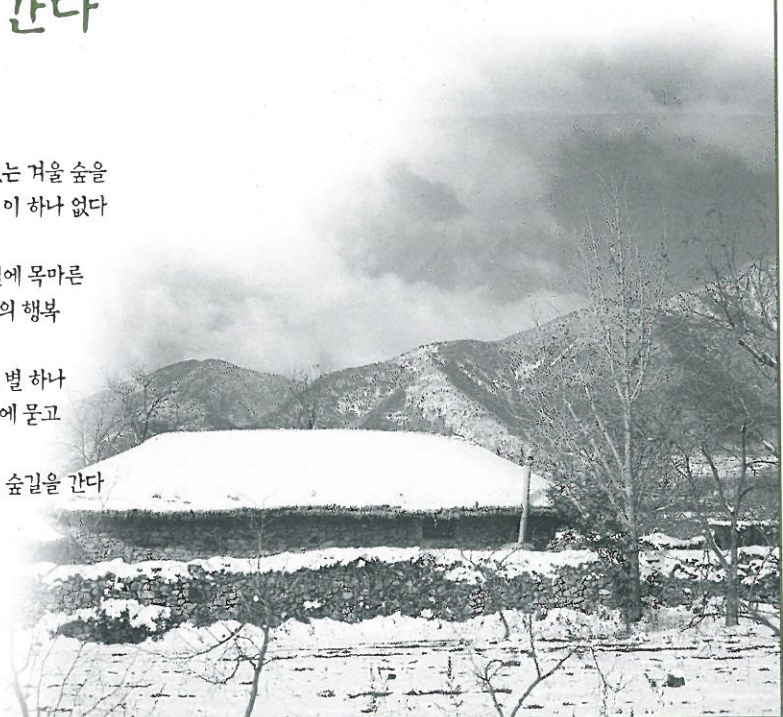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겨울 숲길을 간다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 매일경제 TV(MBN) 방영

12월 4일(화) 오후 7시 "IMF경제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이라는 주제로 당사의 IMF 극복 사례를 총 5차례(12월 8일 오전 12시 · 오후 7시40분, 12월 9일 오전 6시, 12월 10일 오후 12시)에 걸쳐 방영되었다. 이번 방영을 통해 당사는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의 계기가 되었다. **TY**

● QS-9000 내부 감사 양성교육 실시

12월 13일(목)~12월 15일(토)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기산업교육원 주관으로 내부 감사 양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QS-9000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감사원의 추가양성을 통한 내부감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사의 위상정립 및 개선의 추진력 배가를 위해 실시되었다. **TY**

● 태양가족 한마음 특별강좌 실시

12월 18일(화)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까지 2회에 걸쳐 대우종합기계(주) 품질명장 김규환 강사의 특강이 실시되었다. 이날 김규환 강사는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의식혁신 변화와 자기혁신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TY**



● 성탄절 추리 점등식

12월 10일 오후 6시 한우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절 추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탄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2001년 한해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실시하였다. **TY**



● 증권거래소 홍보관 홍보부스 설치

12월 26일(수) 증권거래소 홍보관 개장을 앞두고 당사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였다. 홍보용 부스는 기업 이미지 포스터 부착 및 당사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이번 홍보부스 설치로 투자자 및 증권 시장에 당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TY**

● 근로자 연말 정산 설명회 실시

12월 10일(월) 오후 3시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연말 정산 설명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1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종업원의 이해와 세제혜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TY**

● 상조회 태양가족 돕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상조회 태양가족 돕기에 정찬덕 과장(영업2팀), 조도현 조장(안전환경과)에게 각각 1,000,000원과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퇴직자 최성민 직장에게 30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하였다. **TY**



작지만 알찬 영업소

대구 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영업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까. 직원들 모두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 사무실은 방문자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영업소가 개소한지 8년 동안 매출증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동안의 노력으로 현대, 대우(자)의 1차 벤더업체인 한국델파이, 화신, 삼영금속 등 15개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7시 10분경 일찍 영업소의 셔터문을 열고 하루 납품량 12ton, 월매출액 4억5천만원을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 업무를 영업소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사원이 톡톡 뭉쳐 추진하고 있다.

영업소의 바램이 있다면?

2001년도에 세웠던 매출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여 다소의 기소침하지만 2002년도에는 신규개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으로 웃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정성들여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의 신뢰를 받아 대구지역의 모든 업체들이 당사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영업소의 바램이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구영업소를 굳게 지킬 것이다.

2002년 한해에는...?

어느해 보다 사건이 많았던 2001년도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으로 남게 되었고, 희망찬 2002년도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한테 다가온 2002년도에는 우리의 일터며 안식처인 태양금속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속에 자리잡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고 아니 꼭 되어야 한다. 우리 태양가족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이 피기를 대구영업소직원들이 기원 하겠습니다.



작지만 알찬 영업소의 구성원



■ 왕건달 이근택 소장

- 입사일 : 1983년 5월 3일
- 나의 역할 : 품 나는 대장역할 (대구, 경북지역 20여개업체를 총괄하는 대장이니까!)
- 별명 : 건더기(국물보다는 좋으니까!) 건달(건강한 달구지!)

- 취미 · 특기 : 무협지 보기(영웅이 되고파!!) 볼트장사 (먹고살아야 되니까 T..T)
- 2002년 바라는 일 : 그저 더도 말고 대구에 HD 만한 공장 하나 생겨라!^^
- 하고싶은 말 : 명석 깔고보니 할말이 없네요.^^



■ 만능엔터테이너 송금호 사원

- 입사일 : 1999년 3월 10일
- 나의 역할 : 중간보스(업체와 본사와의 다리역할을 하다보니~)
- 별명 : 광견병 (개발품을 외주업체에 도금하러 갔다가 개한테 물린사건으로...)

- 취미 · 특기 : 아기보기 (결혼 후 얻은 금쪽같은 공주 '가영'이 보는 것이 특기임)
- 2002년 바라는 일 : 대장한번 해보고 싶당! (허적! 소장님한테 혼날라~)
- 하고싶은 말 : 파이팅!!



■ 안방마님 권순옥사원

- 입사일 : 1999년 8월 16일
- 나의 역할 : 안방지킴이 (직원들 모두 외근으로 안방차지는 항상 내꺼!!)
- 별명 : 안방마님 (안방에 하나뿐인 마님이니까... ^^)

- 취미 · 특기 : 너무 많아서... (설거지하기, 책보기, 노래하기 등등)
- 2002년 바라는 일 : 웃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 하고싶은 말 : 모두 건강하시고 잘먹고 잘살시다. **TY**

말띠가 말하는 새해 소망

이방소 | 생산6반

벌써 태양금속에 입사한지 어언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은 장성하여 큰 딸은 나에게 귀여운 손자를 안겨주었다. 세월의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나는 새삼 깨닫는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큰 아이가 첫 걸음 뒀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황혼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련한 추억들이 자꾸 떠오른다.

누가 그러던가? '인생은 60부터' 라고.

60세, 흔히 회갑(回甲) 또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는 말 그대로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갑은 10간과 12지를 조합한 60갑자이므로, 60세의 나이에 이르면 자신이 태어나던 해(임오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 자신이 처음 인생을 시작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의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어느 노래가사에 총각 때는 꿈도 많더니 이제 와서 물거품이런가. 거울 앞에 앉아서 바라보는 내 얼굴 주름만이 늘고 있네요. 젊어질 수 있다면 젊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남자는 70부터야-----



는 70부터야-----

이 노래처럼 남자는 70부터라면 난 아직 10살이나 어린 60살이 아닌가.

그래서 일까. 나의 올해 소망은 좀더 젊고 활력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먼저 올해엔 컴퓨터를 배워 볼 생각이다. 컴퓨터를 배워서 젊은이들처럼 네티즌이 되어 보고 또 채팅도 해보고 웹 쇼핑도 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많이 다니지 못한 여행을 다녀 볼 생각이다. 30년이 넘게 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4명의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보낸 억척스럽고 고마운 아내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나를 비롯한 우리 집안 모두의 건강을 빌고 싶다. 컴퓨터를 배우는 일, 아내와 여행 다니는 일, 또 아직 시집장가 못한 두 딸, 아들이 가정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어쩌면 올해 태양금속과의 굳건한 인연이 희미해질 지 모른다. 촉탁사원으로의 계약이 올해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계약이 끝나면 정말 태양금속에 다시 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아쉬움이 큰 2002년이 될 것 같다. **TY**

김석봉 | 열처리과 · 반장

지난 한 해는 높은 낭떠러지의 무서움과 출렁이는 바다의 엄청난 파도의 위력을 느끼게 했던 한해였다. 그러나 이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다.

힘차게 내 딛는 말의 해를 맞아 2002년은 희망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2002년 5월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이 개최되고 16강의 염원과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 (제발 김씨, 이씨 중에는 안되는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 @..@)

2002년 한해는 근본에 충실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성기 시인의 시중에

굴레벗은 천리마(千里馬)를 뉘러서 잡아다가



조숙 삶은 콩에 살찌게 먹여둔들
본성이 외양하거니 있을 줄이 있으라

이 시는 굴레 벗은 천리마를 누가 잡아다가 겨와 콩을 섞어 콩죽을 살찌게 먹여둔들 그 본성이 역세고 거치니 그냥 머물러 있을 리가 있겠는가?

이처럼 근본(根本)이란 아무리 외부에서 변화를 강요하여도 사물에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근본을 지키고 모든 일에 근본 되는 것에 충실하다면 가정이나 사회 생활이 즐거울 것 같다. 나의 소망은 결코 크지 않다.

나의 가족과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늘 건강하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면 더 바랄게 없다. 새해에는 태양가족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원한다. **TY**

김명숙 | 제품관리과

출근길 이나 퇴근길에 보이는 풍경은 겨울
이 깊어졌음을 느끼게 한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간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
으려면 겨울의 차가움과 을씨년스러움이 한해를
보내는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다. 2001년 한
해를 가슴 벅찬 설렘으로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
하고 설계했었던 그곳에 다시 되돌아서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
엇을 이루었는가?' 라고 자문해 볼 때 허전한 마음만이 남
아 있을 뿐이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태양금속의 일원
으로서 난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늘상 다짐하고
바쁘게 뛰어왔지만, 그래도 뭔가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
울 수가 없다. 이러한 때늦은 후회들은 한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할 때면 항상 되풀이되는 모습들이지만, 나는 또
다시 이루지 못한 소망들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설
렘과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꿈꾸어
본다.

2002년 임오년 한해의 목표는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임오년 한해는 책읽기
를 생활화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
양을 쌓을 것이다. 또한, 주위에 불우한 사람을 도
울 줄 알고, 나의 처지를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누
구에게나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다. 바쁘다는 이유로, 빠듯한 생활고를 이유로 별일도 아
닌 것에 너무 얽매이고 살았다. 또한 내 주위를 단 한번도
관심 있게 둘러보지 못한 한해를 보냈다.

새해에는 내 삶을 여유 있게 되돌아보고, 항상 나의 조그
마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필 줄 아는 가슴이 따
뜻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으며, 나의 맡은바 역할과 소임
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가정에도 좀더 충실하리라. 그
리고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여 지난해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감으로써 성취감을 맛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말띠해를 맞이하여 우리가족과 태
양금속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원기가 왕
성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TY**

정상범 | 설비보전과

어느덧 2001년 신사(辛巳)년이 지나면서 '
난 무엇을 했지' 라는 후회의 생각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이번
해를 돌이켜 보면 후회가 더 많이 남는 한해가 되
어버렸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
다'는 말이 있듯이 나 역시 내년 2002년도를 맞이
하는 마음은 여러 태양가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설렘
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먼저 내년에는 전국민의 소망
인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다. 월드컵이란 이름만으로도 그
설렘을 이루 말할 수도 없다. (난! 상록수 축구회 회원임.)
세계적인 축제가 지구상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분단국
인 한반도에서 그것도 최초로 실시하는 공동 개최라는 점
에서 세계가 지금 한국이란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바램 아니 전 국민의 바램인 16강 진출을 향한
우리 태극전사들의 힘찬 몸놀림을 기대한다. 이번 월드컵
은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만큼 확실히 16강에 들것이
다. 코리아 핫팅!!!! \(\^^)/

코리아 파이팅!!!

2002년은 '말의 해' 즉 상범이의 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



다. ha ha ha ~

한마디로 "끝이야 끝!"

나는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가장 큰 소
망인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한다. 낡으시고 기르신
그 큰 은혜의 사랑을 십분의 일이라도 보답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 못한 나이에 올해 나의 소망도 예
년처럼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건강
하셨던 예전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소망
이 이루어진 것보다 행복해질 것 같다. 모두들 건강의 소
중함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등한시하
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상범이는 모든 분의 행복과 건
강을 기원하는 소망 한가지를 더 첨가 하였다.

모두 분들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저에게 제발 이쁜
여자친구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외로이 보내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TY**

혼자 떠나는 여행

남영모 | 품질보증팀

2001년 한해를 정리하기 위한 여행을 훌쩍 떠났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칠혹 같은 어둠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하듯 나 또한 그 어둠을 싫어한다. 어둠은 자신의 한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

깜깜하고 두렵다고 생각한 어둠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한다. 한참을 달렸을까! 산들바람에 실려 나의 코끝에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내음

모든 잡념으로부터 나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산들바람은 나에게 "빨랑 일어나, 지금 넓은 바다가 널 기다리고 있어"라고 속삭이고 사라져 버린다. 잠시 후 기차에서 내려 난 쾌속선을 타고 나의 목적지로 힘차게 출발하였다. 배가 달려서 생기는 인공적인 파도와 자연적인 파도가 만나 아름다운 야광 빛이 군데군데 반짝거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한시간을 달렸을까! 장엄한 무인도의 작은 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라이트 빛에 보이는 무인도는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습과 비슷한 갯바위를 보기 위해 새벽을 달려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닌가! 모래에 닿는 순간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를 반겨주었고 난 갯바위에 잠시 누웠다.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별뿔별 서너개가 쭈욱~하고 떨어지는게 아닌가. 떨어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 스물살이 되기 전, 집옥상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도 별뿔별 떨어졌고 단지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아픔



을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다. 별뿔별을 보면 행운이 생긴다는 말은 난 이제 믿지 않는다. 그날 나에게 소중한고 사랑스웠던 동생을 다시는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친구의 동생을 또한 멀리 보내야만 했다. 아마도 난 그때 떨어진 별 두 개가 동생과 친구 동생의 목숨을 앗아 갔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다.

어느새 태양이 나의 얼굴을 물들이기 시작하였고, 난 급하게 낚시 채비를 하여 바다에 드리웠다. 조류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찌를 보며 무거웠던 마음이 한풀 꺾이고 기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일상을 떠나 단 하루라도 자연과 한 몸이 된다는 것과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시기심, 질투심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득 이런 글을 떠올랐다.

"산을 좋아하는 이는 有에서 無를 창조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이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려 한다".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 의구심, 욕심 등의 모든 심을 넘어서면 도가 트인다는 것일까. 하루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니 어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문득 보고 싶어진다. 항상 소홀했던 점이 너무 많아 이 기회를 통해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안산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걸 주지만 우리는 자연에게 주는 것 없이 얻기만 하는 것 같다. "자연님! 죄송합니다"

끝으로, 태양가족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항상 내 옆에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서 있는분의 소중함을, 고마움을, 사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Y**

알림글

기억하십니까?

예전 우리와 함께 일하시던 제조3과 최성민 직장을..
얼마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엔 사람과 사람의 정이 특히 그리울 때입니다.
최성민 직장에게 따뜻한 격려 전화 한 통화 어떨까요.

TEL : 031-774-0793 H.P : 018-558-0793

■ 한우삼 대표이사 금일봉, (주)현양 한정삼 회장 쌀 한가마를 도와주셨습니다.

태양탁구회 - 태양탁구회 회장 최동각 -

2001년 한해가 서산에 노을이 지듯 뉘웃뉘웃지고 있습니다. 신년벽두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저의 탁구회를 위하여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록수 축구회 - 상록수 회장 마당쇠 이종로 -

한해동안 상록수 축구회에 애정과 질책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태양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해동안 상록수 축구회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태양가족이라는 든든한 서포터(supporter)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태양볼링회 - 볼링회 회장 이두환 -

신사(辛巳)년이 재야의 종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200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볼링회의 2001년 돌아보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운동경기를 통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태양인터넷빙고 - 태양인터넷-BINGO 회장 백주현 -

인터넷 Korea, 월드컵 Korea! 2002년이 밝았습니다. 태양인터넷 빙고회원님들 새해에도 더욱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On-line에서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Off-line에서는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2002년이 되길 바랍니다.

태양산악회 - 태양산악회 감사 송병탁 -

어느덧 2001년의 한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2001년 산행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심, 협동심, 용기 등의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발전된 모습의 서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태양인의 긍지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참된 태양인 되자!"

태양 낚시회 - 태양낚시회 회장 이일주 -

2001년도 4월 월척의 꿈을 안고 시조회를 시작하여 지난 달 낚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1년을 마감하고, 200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낚시회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임직원 및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뜻 있고 알찬 임오년 한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회 - 불우이웃돕기 회장 김찬수 -

지난 한 해 많은 회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오갈데 없는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낮아진다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축 하 게 시 판****생일 "축하합니다"**

제품관리과 안길례 1.1
생 산 5 반 유재호 1.1
제품관리과 이옥순 1.3
설비보전과 안광훈 1.3
재 경 팀 오중희 1.3
표면처리과 이재용 1.6
영업관리과 이상일 1.7
영업관리과 박정배 1.7
기술개발팀 손성식 1.7
품질보증팀 박득선 1.7
품질보증팀 김태용 1.7
기술개발팀 이정구 1.8
관 리 팀 권중국 1.8
생산관리과 김성태 1.9
생 산 6 반 최규원 1.9
생 산 2 반 최창현 1.9
표면처리과 유홍용 1.9
대구영업소 권순옥 1.9

제품관리과 김명석 1.14
생산관리과 김한용 1.15
제품관리과 임정희 1.16
설비보전과 정상범 1.16
영업관리과 이인기 1.17
생 산 1 반 전유남 1.17
품질보증팀 백주현 1.17
설비보전과 조일산 1.19
영업관리과 김일혁 1.20
영업관리과 임병훈 1.20
생 산 5 반 이완배 1.20
제품관리과 김성용 1.20
안전환경과 우준희 1.21
제품관리과 이순덕 1.22
생산관리과 조진수 1.22
기 획 팀 박영환 1.22
재 경 팀 최동배 1.22
생산관리과 홍치호 1.23

생 산 2 반 전병호 1.24
품질보증팀 박익순 1.24
기술개발팀 서용권 1.24
기술개발팀 한호춘 1.25
동 박 T F T 조진환 1.25
기술개발팀 박동구 1.25
관 리 팀 유현민 1.25
열 처 리 과 이상규 1.26
생 산 1 반 심상범 1.26
동 박 T F T 박천만 1.26
품질보증팀 차준성 1.27
강구생산과 길선옥 1.29
중 대 본 부 이희섭 1.30
영 업 1 팀 오제철 1.30
표면처리과 박범옥 1.30
생 산 2 반 신현원 1.30
설비보전과 박제완 1.30

결혼 "행복하세요"**표면처리과 박 종준사원**

사랑이란 주고 또 주어도
더 못줘서 안타까워 지는
것라고 하네요. 항상 서로
를 아껴주면서 사세요.



우리가족 소개해요

2002년 새해를 출발하는 신년호에 저희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내 커플로 이른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시
간까지 함께 하지요.

"함께"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구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어
요. 6년이란 시간을 함께 출·퇴근을 같이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 보단 행복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침 공기를 마
시며 차안에서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럽죠? (호! 호! 호!)

중학교 3학년인 아들 종범과 중학교 1학년인 딸 선아도 우리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고 있습니
다. 저희 가정의 행복이 태양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되
길 저희 부부 아니 저희 식구들 모두 기도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완배 반장 & 한영미 사원 올림-



사랑하는 아빠에게

추운 겨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주일이나 쉬는 날 저희와 같이 공원에 나가 고기도 구워
먹고, 학교 운동장에 나가 축구도 하며 함께 놀아 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피곤하시지만 저희들을 위해 그렇게 놀아주시는 아
빠가 정말 좋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기쁘게 해드
릴게요.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회사일 열심히 하세요.

아빠... 파이팅! 그럼 이만 줄이게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선아 올림-

사랑하는 나의 아들 . 딸에게

너희들을 낳고 아빠가 됐다는 기쁨에 좋아했던 때
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아빠 엄마만큼 커 버린 너희
들의 모습을 보며 대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회사 일로 인해 일찍 떼어놓고 너희들
을 제대로 돌봐 주지 못했지만 하느님 말씀대로 순
종하며 바르고 착하게 자라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알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 주길 바랄 뿐이다.
지금의 우리가정은 아주 행복하다. 이 행복이 하
느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길 아빠는 오늘도 기도한
다. 사랑하는 종범아.. 선아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어머나에게

날씨는 추워지고 새벽부터 저희들을 위해 출근준비로 늘 바
쁘신 엄마를 보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16년 동안 저
를 키워 주시고 수고하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
를 본 받아 교회에도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추운
겨울 몸조심하시고 쉬엄쉬엄 일 하세요. 그럼 이만 펜을 놓
을게요.

-엄마가 사랑하고 엄마만을 사랑하는 엄마의 아들 종범 올림-